

영화 감독 **장/선/우**

"2002년 3월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태극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갑자기 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답답함, 그리움, 더러움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이겠지요."

영화 '화염경'과 '꽃잎', '나쁜 영화', '거짓말' 등을 과격적이고 새로운 연출로 영화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킨 영화감독 장선우(51) 씨가 시집 <이별에 대하여>를 펴내고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난 이제 다시 옷을 벗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안에서/ 오체투지 108배, 108배, 1080배...// 그녀는 그렇게 멀어지네요." ('입재' 中)

"이별은 없는 것/ 윤회는 끊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텐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회향' 전문)

'입재'라는 시로 시작해 마지막 시 '회향'으로 시집을 담은 장 감독은 "나와 내 영화에 대한 논란 때문에 받은 고통이나 실연의 아쉬움을 풀어내기 위해" 시를 썼고, "살아가면서 이별을 겪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집을 냈다고 말한다.

지난 12월 26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 감독은 지난해 여름 해인사의 한 암자에서 하안거를 지낼 때 겪었던 머리가 아직 채 지라지 않아 까칠한 모습이었다. 안거 동안 그는 해안 스님(전 조계종 종정)에게 받은 화두를 참구했다고 한다. '절'과 '세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건만, 굳이 안거에 든 것은 화두를 '알음알이'로 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법(萬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이 하나는 무엇인가." ('열반' 中)

"선정(禪定)의 경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는 몰입의 경지, 몰아의 경지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잘 놀 때와 (영화를) 잘 찍을 때, (선방에서) 잘 참선할 때가 모두 행복이죠." 그가 불교와 만나게 된 것은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참되게 이 세상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부터다.

"있는 그대로 보자. 당위성이나 전망, 합법지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만 세상을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영화에 녹아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동안 만드는 영화마다 논란을 빚었지만 영화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유도하는 '열린 영화'를 지향하는 장 감독은 논쟁 속에서 사회의 포용력이 커질 거라 기대하고 말한다.

"일부러 논쟁을 부추기려고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그 시대의 문제를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했을 뿐이죠. 제 영화는 온갖 변화와 시대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 방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로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던 영화 '거짓말'은 가장 정치적인 영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베니스 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아름답고 추한 것, 좋고 나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분별심을 버리게 했습니다. 배우들에게도 뻔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객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개봉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하 성소)' 역시 만장일치보다는 갑론을박의 평가를 끌어내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3년이 넘는 제작 기간과 110억원이라는 조유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영화는 감독에게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주가 성소를 구하기 위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푸는 열쇠로 주어진 것은 금강경 사구계의 한 구절인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 여래모든 상이 허망하니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여래를 본다'. 이 구절은 영화를 만드는 전 과정에 있어 장 감독의 화두이기도 했다.

"내 목을 파고드는 죽비소리/ 따라 나는 갑니다/ 지금은 소발자국 어지럽고/ 아직은 죽비소리 슬프지만/ 인젠가는 그 소리마저 잊을 거예요."

장 감독은 "그동안 관객들이 영화를 평가했다면, '성소'는 영화 관객의 삶에 대한 경험수준과 이해력을 평가하는 영화"라고 자부한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제시한 길 역시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제 영화 작업 역시 선재동자가 늘 머물지 않고 법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지난 영화가 이뤄놓은 성과를 모두 부정하고 새롭게 떠나는 '구법(求法)'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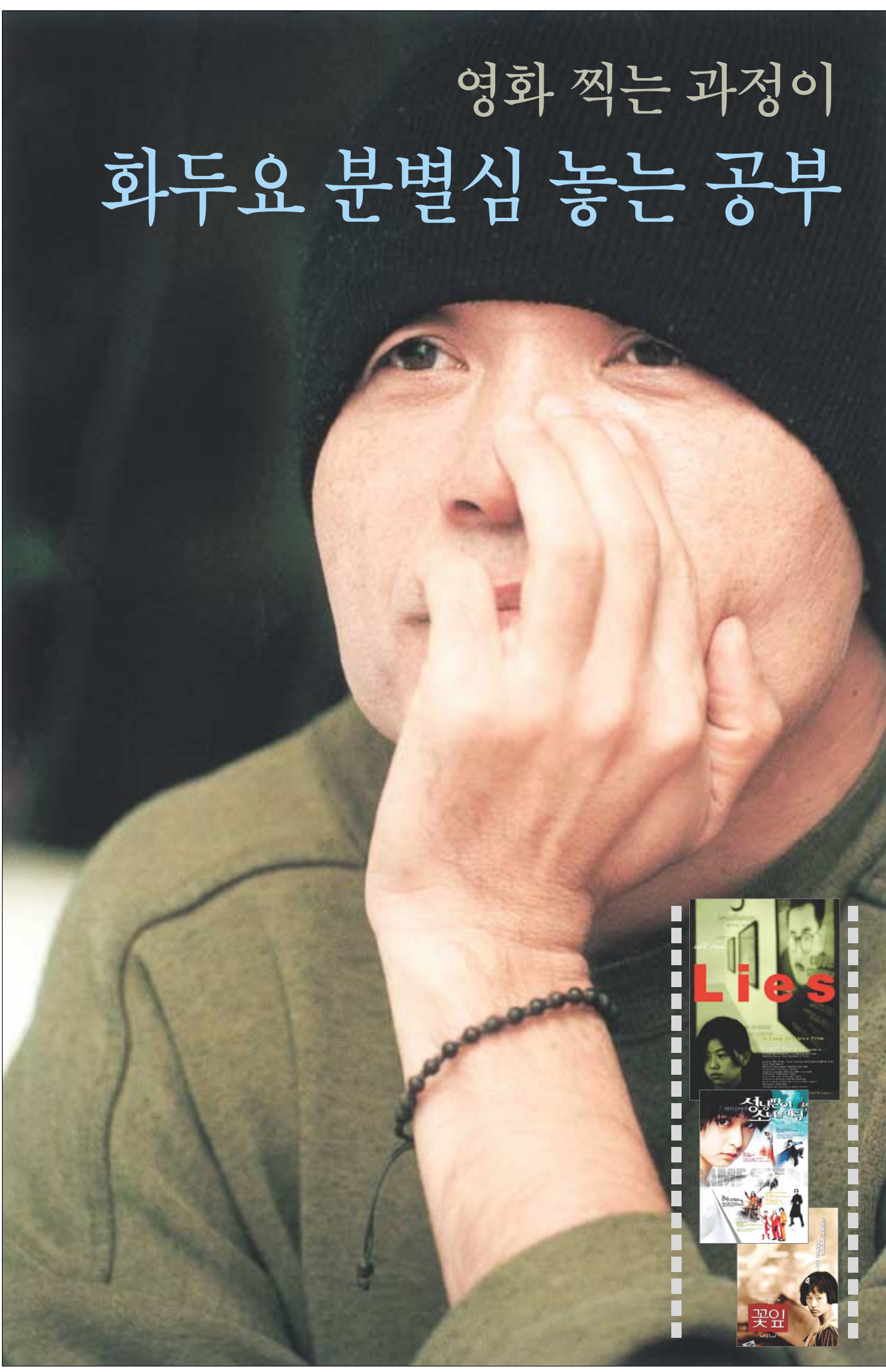
그와의 인터뷰를 마칠 무렵, 영화 '성소'에 나온 대사 한 구절이 생각났다.

"방심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장 감독이 영화를 통해 감독 자신에게,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닐까.

글=여수령 기자·사진 고영배 기자



시집 통해 세상 바로보는 눈 제시  
시대문제, 불교적 세계관이 대안  
작업·참선할때 모두 행복한 순간



세계적 아름다운 공간  
**vivaldi**  
만리벽빌다

## 漢拏 명품에는 '격' 이 있습니다

아름답되 속되지 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 한라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철학입니다.  
우려한 기층 속에 변함없는 가치가 빛나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 한라 비발디

2004년 주택공급계획				총 5,519세대 분양예정			
위 치	시업유형	평 면	기공수	분양시기	위 치	시업유형	평 면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	10~29	173	04-02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32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32	300	04-06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32
인천광역시	아파트	32	300	04-06	충남 천안시	아파트	33~53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	32~40	796	04-07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32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32	400	04-07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32

문의 : 02)3434-5797

**한라건설**  
www.hallaaapt.co.kr